

【국어 산책】

연구 자료의 영인 - 훈민정음의 경우 -

김영배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1.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필자의 대학 재학 시절은 난리 통이어서 훈민정음 영인본조차도 보지를 못했다. 처음으로 영인본을 본 것은 1950년대 중반 대학을 마치고서였다. 아마도 당시 본 것은 훈민정음 언해본으로서 계명구락부에서 1932년에 영인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때는 난리를 치르고 난 뒤여서 아직 새로운 영인본도 간행되기 전이고, 광복 전의 영인본조차도 구해 보기 어려웠던 때였다. 그 후에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전신)가 광복 다음 해에 발행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독했고, 다음에는 김민수(1957) 「注解 訓民正音」(권말에 해례본과 언해본을 축소 영인)이 나와서 샀지만 필자의 연구 주제와는 거리가 있어서 참고로만 보았고 실제 이용한 적은 별로 없었다.

2.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훈민정음 강독' 강좌를 맡을 기회가 돼서야 소장본을 챙겨 보게 되고 학생들에게 과제로 해례본의 본문을 직접 옮겨 적고, 이미 간행된 연구서를 참고로 번역문(5·6종)도 아울러 적어서 제출시켰는데, 한 학생이 한문 글자에 달린 圈点에 대한 질문을 해왔다. 곧, 해례 5장 뒷면 2행의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正音解例 5 ㄴ」에서 ‘。待’자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이었다. 그래서 교재(이는 다음에 말하는 재복사판 영인본이었다)만 보아서는 알 수 없어서 조사해서 알려 주기로 하고, 권점에 대한 논문과 사진판 영인본(김민수 1957)을 찾아보았더니, 문제의 '待'자 원편에 있는 권점은 파음자를 나타내는 권점이 아니라, 책장 뒷면에 찍어진 언문글의 한 부분 곧 “...암과...”에서 '암'자의 'ㅇ'자가 해례본의 지면으로 보면 공교롭게 '待'자의 원편, 두 인편 위에 찍어서 상성을 표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ㅇ'은 권점으로 쓰인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는 조선어학회(1946)와 같은 '수정판 영인본'만을 보아서는 알 수 없고, '사진판 영인본'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런 잘못이 있게 되었는가?

여기서, 이 글의 '사진판 영인본'과 '수정판 영인본'이란 용어에 대해서 손희하(1997)을 참고로 부연키로 한다. 곧, 김민수(1957)에서와 같이 영인 저본(底本)을 사진 필름으로 찍어서 이를 인쇄하여 영인본을 만든 것을 '사진판 영인본'으로, 조선어학회(1946)와 같이 영인 저본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필름에 나타난 해례 본문 이외의 글씨 등을 다 지워 없애거나 또는 틀린 글자 등을 고치거나 하여 이 필름으로 인쇄한 영인본을 '수정판 영인본',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든지를 다시 저본으로 삼아서 영인한 것을 '재복사 사진판/수정판 영인본'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왕에도 이 영인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안춘근(1983).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지학적 고찰』. 『한국어 계통론, 훈민정음연구』 집문당), 박종국

(1984 : 193)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안병희 (1986) 「훈민정음해례본의 복원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탐출판사)—가 있으나, 근래 손희하(1997 : 1033~1038) 「국어사연구와 서지학」 『국어사연구』 태학사)에 이런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다.

해례본의 영인은 앞에 든 조선어학회(1946)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공을 들여, 原尺에 五針眼訂法の 東裝本으로 전통적인 우리나라 고서의 크기와 같이 해서 단행본으로 간행했는데,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문헌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서 보통 사람로서는 쉽게 열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계에서 연구에 이용하는 해례본은 거의 모두가 1946년판의 영인본이거나, 이를 저본으로 하여 재복사한 영인본(재복사 수정판 영인본)을 보거나, 다시 이 재복사 수정판 영인본을 저본으로 하여 낸 (?) '재재복사 수정판 영인본'을 이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동안 이 '待'자에 대해서 간혹 주변의 동학들에게 말했으나, 이 글을 청탁 받고 좀더 알아보려고 훈민정음 영인본을 볼 수 있는 대로 조사해 보기로 했다. 여기에는 해례본과 언해본의 영인만을 목적으로 한 것에서부터 연구서의 부록, 문고본으로 된 주해서 또는 국어사 자료 강독을 위한 자료집 등을 모두 대상으로 했으며, 차례는 초판의 간행 연대 순으로 했다. 물론 더러는 필자가 미처 보지 못한 책도 있을 수 있는데, 빠진 것은 지적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근래 나온 어떤 책은 분명히 초판은 아닌데도 초판 발행 연도는 없애고, 간행 당시의 연월일을 발행 일자로 해 놓은 것을 보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은 출판 윤리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어학회(1946). 『訓民正音』. 보진재.(原尺, 東裝本)

김민수(1957). 『注解 訓民正音』. 통문관.

△이상백(1957). 『한글의 起源』. 통문관.

○국어학회(1971). 『國語學資料選集 Ⅱ』. 일조각.

-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1972). 『月印釋譜 卷 1·2』. 서강대학교.
- △이정호(1972). 『解說 譯註 訓民正音』. 보진재.(原尺)
- △국어학회(1973). 『國語學資料選集 IV』. 일조각.
- 한국어문학회(1973). 『中世語文選』. 형설출판사.
- 한국고전총서간행위원회(1973). 『訓民正音』. 대제각.
- 강신항(1974). 『訓民正音(문고본)』. 신구문화사.
- 서병국(1975). 『新講 訓民正音』. 경북대학교.
- 박종국(1976). 『訓民正音(문고본)』. 정음사.
- 박병채(1976). 『譯解 訓民正音(문고본)』. 박영사.
- 유창균(1977). 『訓民正音(문고본)』. 형설출판사.
- 동악어문학회(1980). 『訓民正音』. 이우출판사.
- 박은용, 김형수(1984). 『國語 資料 古文選』. 형설출판사.
- 이성구(1985). 『訓民正音 研究』. 동문사.(原尺)
- 朝鮮語學科研究室(1987). 『中期朝鮮語資料選』. 日本 東京外國語大學.
- △신상순 외(1988).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2). 『역주 월인석보 제1,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민현식(1992). 『중세국어강독』. 개문사.
- 한국어학연구회(1994). 『국어사자료선집』. 서광학술자료사.
- 이근수(1995). 『訓民正音 新研究』. 보고서.
-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6). 『세종학연구 11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고영근, 남기심(1997). 『중세어 자료 강해』. 집문당.
- 한말연구회(1998). 『국어사 강독선』. 박이정.
- △한글학회(1998). 『訓民正音』. 海誠社.(原尺. 復原. 東裝本)
- 강규선(1998) 주해. 『月印釋譜』. 권 1, 2. 보고서.
- ※ △표는 해례본만 영인한 것 - 6책.
○표는 언해본만 영인한 것 - 7책.

이밖에 아무 기호가 없는 것은 해례본, 언해본을 모두 영인한 것 - 15책.

※ 이상백(1957)은 발행소와 발행 일자가 같으며, 영인 내용도 같으므로, 김민수(1957)만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위에서 원칙으로 영인한 조선어학회(1946), 이정호(1972), 한글학회(1998)을 제외하면, 대다수는 국판이나 문고본 크기에 맞게 축소 영인한 것이다. 또한 도서명이 '훈민정음'이라고 되지 않은 것은 그 속에 해례본과 언해본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위의 해례본 영인에서 문제의 '待'자에 잘못된 파음자 표시는, 사진판 영인본인 경우는 그런대로 주의해 보면 파음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제외하고 재복사판 영인본은 모두 파음자로 오인하게끔 '待'와 같이 되어 있다. 그런데 한글학회(1998) 수정 복원판에는 '待'로 고쳐졌고, 부록으로 "간송박물관 '훈민정음' 바로잡기 일람표"가 있는 해설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서문의 끝자 '矣'→'耳'를 비롯하여 파음자 표시의 잘못(5), 구두점의 잘못(9곳) 등을 수정했다.

해례본의 파음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정연찬(1970) 세종대의 漢字四聲表記法, 「국어국문학 49, 50호」(국어국문학회)인데, 여기서도 '待'자는 파음자로 처리되었으나, 이것이 파음자에 속할 것이 아님을, 최세화(1997) 「훈민정음」 落張의 復原에 대하여, 「國語學」 29호 注13에서 자세하게 지적했다.

이번에 영인 상태를 살피면서, 원본의 판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보았는데, 판심을 그대로 둔 것은 사진판 영인본 계열인 김민수(1957), 박종국(1976), 東京外大(1987),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6)이고, 간혹 그대로 둔 것도 잘 보이지 않게 된 것도 있으며, 한글학회(1998)은 복원판이므로 원본을 참고로 판심을 완전히 복원했고 나머지는 아예 없앤 것도 있었다. 이에 따라 판심제명과 장차도 달라지게 된 것이 있게 된다.

해례본의 처음 두 장은 補寫된 것으로 판심제를 '正幅'으로 했는데, 이는 사진판 영인본을 보면 다음 두 장이 '正幅'으로 돼 있음에서 그리한 것임을 알

만하다. 해례 부분의 처음 4장은 관심이 磨損되어 잘 알아 볼 수 없으나, 5장째는 글씨 右半部가 분명히 ‘正音解例’임을 확인할 수 있고 장차(張次)도 ‘五’의 우반부가 분명하다. 이렇게 관심의 장차를 알아 볼 수 있는 것이 몇 장 계속되다가 다시 알아 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二十六, ... 二十八’은 볼 수 있고 다음이 끝장이므로 끝장은 ‘二十九’로 단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례본의 예의 부분 처음 4장과 해례본 29장은 관심제가 다르고, 장차도 전자가 1ㄱ~4ㄴ, 후자가 1ㄱ~29ㄴ으로 달라야 하는데도, 영인본 중의 어떤 것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1~33으로 장차를 매겨 넣은 것도 있다. 그러므로 해례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출전을 밝힘에 있어서, 대체로 ‘制字解, 初聲解...’등으로만 적고 장차는 밝히지 않은 것이 예사였는데, 初聲解, 中聲解, 終聲解 등은 분량이 많지 않아서 무방할지 모르나, 制字解는 14장 28면이나 되므로, 이는 관심제와 장차를 “...○連書脣音之下 則爲脣輕音者……” 「正音解例 4 ㄴ」와 같이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해례본의 영인본을 그 영인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면,

- i. 조선어학회(1946) 수정판 영인본 — 재복사 수정판 영인본: 거의 대부분의 영인본.
— 수정 복원판 영인본: 한글학회(1998).
- ii. 김민수(1957) 사진판 영인본 — 재복사 사진판 영인본.

와 같은데, 수정복원판을 제외하면 사진판 영인본을 이용하는 것이 원본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물론 이 경우 한자의 오자, 파음자 표시, 구뚝점 등의 잘못에 대하여는 이미 나온 논문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3.

다음은 언해본의 영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소위 희방사

본(1568)을 영인한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데, 月印釋譜 초간본을 영인한 서강대본의 영인이 1972년 간행됨으로써 이 영인본을 저본으로 해서 낸 재복사판 영인본이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月印釋譜 권 1 卷首에 있는 훈민정음 언해본 첫장의 下端 부분이 磨損되어 불분명한 부분 중에서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2행의 ‘:지스·샐’과 7행의 ‘-·온’만을—이는 김민수(1957)의 회방사 영인본과 아울러 보면 알 수 있음— 대상으로 한다. 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지스샐’임을 알 수 있으나, 서강대(1972)를 저본으로 한 재복사판 영인본인은 잘 알아 볼 수가 없으므로 이를 ‘지스신, 읍…’과 같이 (?) 친절하게 붓글씨로 수정해서 영인한 수정 재복사판이 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한 면의 다른 글자에 비추어 보면 각자한 글자가 아니라, 붓글씨임을 쉬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정 여부를 기준으로, 앞의 일람에서 언해본을 영인한 22책을 나누어 보면, 현재까지 유일한 원본인 서강대본을 영인한 서강대(1972)와 회방사본을 저본으로 한 8책을 제외하면 14책 모두가 서강대(1972)를 재복사한 영인본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서강대(1972)를 충실히 그대로 복사한 것은 4책 정도이고, 나머지는 서강대(1972)를 저본으로 하면서도 첫장 하단의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붓글씨로 수정해서 영인한 수정 재복사판으로 본다. 그런데 이 수정에 있어서 저본을 잘 보고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으나, ‘지스샐’을 ‘지스신’으로, ‘-온’을 ‘-읍’으로 잘못 수정을 해 놓아서 잘못이 이중으로 되어버렸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본이 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영인해야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잘못 수정했으니, 이러한 실수는 아마도 국어학적 지식이 없는 이가 사진판 영인본을 보고 자기 판단으로 고친 것이 아닌가 한다. ‘지스샐’은 그만두고라도, 7행의 ‘-온’은 바로 앞의 ‘中國’의 보조사로 쓰인 것인데, 짐작컨대 첫장 뒷면의 글씨 획이 비쳐서 그리 보였는지 확실치 않으나, 전후 문맥은 관계없이 글자 한 자만 보고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저본이 서강대본이라고 한 것도

간혹 있으나, 거의가 저본에 대한 언급도 없으니, 아는 사람이 본다면 웃고 넘길 수도 있겠으나, 일반인이나 학생들은 수정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언해본이 본디부터 그런 줄 알 것이니, 이런 책을 가지고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술 더 떠서 ‘지스신’은 ‘지스샐’으로 고쳤으면서도 ‘읍’은 그대로 둔 책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언해본을 영인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저본은 서강대본 한 가지이면서도,

- i) 서강대(1972)와 같이 수정 없이 그대로 영인한 것이 4책.
- ii) 서강대(1972)를 저본으로 하되, ‘지스신, 읍’ 등으로 잘못 수정해서 영인한 것이 9책.
- iii) (ii)를 다시 ‘지스샐’으로 고치고, ‘읍’은 그대로 두고 영인한 것이 1책.

와 같이 세 가지가 있게 되었고, 여기에 판심과 장차를 아울러 본다면 이 또한 갖가지이다. 한 가지 문헌의 영인이 어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교육과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이것이 대학 교육의 현장에 그대로 쓰이고 있으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모두 알고 보충 설명을 한다면 모를까,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심히 지나친다면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기에는 저자 자신의 서지학적인 소양이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인쇄와 발행을 맡은 출판사의 책임 또한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 글을 쓰면서 필자 자신도 반성을 했다. 필자의 저서나 필자가 관계한 학회에서 영인한 것에 제멋대로 수정한 것은 없으나, 위에서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미비한 점은 그대로 우리 학계의 수준을—여기에는 출판사의 책임도 있지만—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영인 과정에 좀더 주

의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기서, 우리의 고문헌을 일본의 대학에서 교재로 영인한 東京外國語大學(1987)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고문헌의 영인에 꼭 지켜졌으면 하는 점을 적으면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 i. 가능한 대로 영인 저본은 원본을 써야 하겠으나, 그것이 오랜 세월 전 해지면서 훼손되어 쉽게 볼 수 없는 귀중한 희귀본인 경우, 이미 영인된 것이 있으면 차선택으로 사진판 영인본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 사진판 영인본의 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수정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그대로 영인하되 사진판 영인본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해제에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야 재복사판 영인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 ii. 거듭되는 말이지만, 원본의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가급적이면 원칙으로 영인해야 할 것이다.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판식이나 앞뒤 표지, 혹은 면지 등에 있는 낙서까지도 있으면 다 나타나게 하며, 원칙이 아닌 경우는 그것도 서지에다가 밝혀야 할 것이다.
- iii. 원본이나 사진판 영인본, 어느 책을 저본으로 하든지 반드시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격적인 해제는 아니라도 그 문헌의 서지 사항은 빠뜨리지 말았으면 한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훈민정음 같은 국보급 문헌인 경우, 이는 민간 출판사나 대학의 연구기관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기관이 귀중본의 보존 차원에서 원본에 버금가는 영인본을 간행했으면 한다. 요새 정부의 예산 씬씀이로 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문화나 교육 담당 부서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